

## ‘안전’을 공유하는 ‘굿라이더’가 되어주세요!

전 세계 기상이변,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국 선언 등 친환경 교통수단은 열망을 넘어 필수인 시대. 그 중심에 요즘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사고의 위험이 높아 도심 질서에 불안감을 주는 요소가 되었다.

글: 허주영(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인구 증가 그에 따른 사고의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소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며 전동 휠, 전기자전거 등(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이 포함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므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여 친환경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요즘 1인용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PM 이용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PM 이용자의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PM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 건수는 2019년 17건에서 2020년 3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경우도 2019년에는 19명에서 2020년에는 4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난해 우리 일산서구에서도 전동킥보드 운전자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사고의 위험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대화역 캠페인



보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단속



어린이 등굣길 캠페인



대화역 캠페인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다양한 노력

가파른 이용인구의 증가와 사고의 위험 증가로 2021년 5월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개정안의 목적은 바로 ‘안전’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이 가능해지고,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밖에도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금지(범칙금 2만 원),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 원), 동승자(2인) 탑승금지(범칙금 4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금지(범칙금 1만 원), 약물 또는 과로·질병 등 운전 금지(범칙금 10만 원)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행 가능한 운전자의 조건을 상향시키고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법 시행과 더불어 경찰에서는 대국민 PM 통행방법, 운전자 의무 등 안전수칙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개정법 시행 초기 100일 단속을 추진하여 현장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단속과 경고·계도 등 단계별 단속을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산서부경찰서는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과 협업을 통해 PM의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유도하는 주차존을 정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하는 등 PM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안전’을 공유하는 ‘굿라이더’가 되어주세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킥라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 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한다는 의미의 신조어로 PM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PM이 더이상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울타리를 튼튼하게 정비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이다. 아무리 사회적 울타리가 튼튼하더라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안전한 사회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공유’서비스의 확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PM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듯이 ‘안전’도 서로 공유하면 어떨까?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너도 나도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을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의 ‘안전’이 지켜지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모두를 위해 ‘굿라이더’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

